

백석 시에 나타난 구술과 기억술의 이데올로기

김 용 희*

차 례

- | | |
|--------------------------|---------------------------------|
| I. 언어와 민족과 계급의 문제 | IV. 구술사로서의 기억과 정치술 |
| II. 1930년대 조선문단과 지방어의 발견 | V. 구술성의 선택과 이데올로기 : 결론을
대신하며 |
| III. 구술 음성 복원과 전통 | |

I. 언어와 민족과 계급의 문제

1935년 카프가 해체되고 1942년 ‘조선어학회’가 검거, 해산되자 ‘조선어’조선 문학’은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임화의 말대로 “모어를 수호하는 것이 민족 문화유지의 유일한 방편”¹⁾이긴 했지만 실제적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광수, 박영희, 김광섭, 이태준은 강경하게 ‘순조선어 문학’을 주장했지만 언어적 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 문명의 이식이 일본을 통한 것이었고 일본

* 평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임화,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기본과제에 대한 일반보고』, 조선문학가동맹, 『건설기의 조선문학』, 1946.6.

어는 근대 이식의 상징적 도구였다. 근대적 질서와 지식의 습득, 문화적 교양과 근대문학의 수용과정은 일본어를 경유하는 수순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당시 식자층은 일상대화 중에도 일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식계층임을 드러내고자 했다²⁾. 문학자 스스로가 ‘모국어 수호’의 원칙을 배반하는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계급적 구별을 짓기 위해 일본어 창작으로 나아갔다. 극단적으로 이광수는 “일어와 조선어의 뿌리가 같고, 조선어는 더 우월한 ‘국어’의 일부이기에 ‘없어질’ 운명을 가진 ‘지방어’”³⁾라 주장하기도 했다. 문학자들은 문학이 조선어의 유일한 보루라는 점을 당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근대 상황적 논리 속에서 일본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읽어 나간 것이다. 실제 1930년대 이후 조선의 ‘신문학’독자가 일본어 문학책과 소설을 읽는 것은 전혀 일상한 일이 아니었다⁴⁾. 이것이 1930년대 중반 이후 문단에서의 현실적 정황이었다.

‘신문학’으로 개시된 조선근대문학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조선문학은 스스로 조선의 ‘전통’과 ‘조선정조’를 찾으려 한다. 30년대 말 <文章>지가 보여준 일련의 고전부흥론이 그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음험한 정체가 드러나면서 근대에 대한 환상이 분열, 교체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이때 ‘고전적인 것’을 탐구하고 재현하는 일련의 작업은 1930년대 후반 문단의 중심적 움직임이었다. <文章>지의 이병기, 정지용, 이태준을 중심으로 시조와 내간체류의 발굴과 창작, 고전세계와 역사에 대한 연구가 왕성해진다. ‘조선적인 것’의 향토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고전적인 것’의 구체적 표상들을 전통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내포하는 것⁵⁾이었다. 이에 대해 임화는 고전부흥론에 대하여 현실도피적이

2) 천장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251쪽.

3) 장연화, 『문학기생의 고백』, 『삼천리』, 1934.5.

4) 해방이후 박완서 선생이 일본어소설책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습득했다고 고백하는 과정이나 근대 식민주체 지식인청년이 일본유학을 통해 일본어를 지식어, 문명어로 습득하면서 계급적 식자층을 형성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을 생각해본다면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수용 과정에서 ‘번역된 근대’라는 말이나 ‘일본근대문학 수입과 영향’관계를 단순하게 ‘민족문학’적 차원에서 한계 지을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문명과 문화, 언어에서의 강경한 순혈주의나 ‘순조선어문학’만이 조선문학이라는 주장, 그리고 일본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이나 아니냐를 가르는 이분법은 불완전한 것이며 식민지상황과 작가의 문학적 경과 속에서 치밀한 천착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5) 황중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1930년대 후반기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

며 보수반동적 경향이라며 비판을 노골화하기도 했다⁶⁾.

그러나 파시즘적 일본근대에 대한 균열을 체험하면서 등장하게 된 ‘전통’의 복원을 조선문단의 복고주의라고 단순히 폄하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한국근대사에서 전통적 서정시의 대개가 반동적 민족주의로 치부될 수 있다. 전통에의 회귀는 카프이후 근대성을 대변하는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반동이기도 했으며 과거 고전을 통해 역사성과 전체적 질서(전통)를 정립해가려는 역사적 심리의 당연한 발로이기도 했다. 근대의 전환기 속에서, 신념체계의 붕괴와 혼돈 속에서 식민주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시대의식과 사회의식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고전세계’와 그를 통한 ‘전통수립’은 근대의 혼류 속에서 사상적 거점을 찾고자 하는 한 방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문장과 문인들이 사상적 규범으로 삼고자 한 것은 일관되게 유교적 교양이었다. 문인화나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에 대한 집착, 서권기(書券氣) 등에서도 나타나는 바 <文章>지는 표지와 내용에서 사대부 문인정신에 대한 지향⁷⁾을 철저하게 드러낸다. 이원조는 “문학사에서 고전이란 과거의 작품 중에서 결작만을 가리키고, 일반사에서의 역사적 사실이란 과거의 사실 중에서 중요한 사실만을 말한다든 점에서 양자는 서로 흡사하다”⁸⁾고 말한다. 이때 “고전의 작품 중에서 결작”을 선별하는 문장과파의 자세는 철저하게 엘리트주의적 문화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장과파 문인들은 사대부의 정신적 전통과 문화를 숭상하면서 그 안에서 귀족적 정신주의와 선비정신을 찾으려 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태도는 기실 30년대 식민주체 일본 유학과 지식인들이 일어로 작품을 읽고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데서 문명적 계급적 표식을 찾으려 한 점과 일치점이 있다. 근대 진보의 원천이 일본 근대문학에 있다고 생각했던 유학과지식인이든 근대를 부정하고 고전 전통에서 한국문학의 역사성과 독자

국대학교 박사논문, 1991.10쪽.

- 6) 임화, 『역사적 반성애의 요망, 『조선중앙일보』, 1935. 7. 5-16쪽.
- 7)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1930년대 후반기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박사논문, 1991, 황종연은 문장지의 전통 지향성에 대하여 이병기를 “풍류의 전통과 蘭의 경험”으로 정지용을 “심미적 귀족주의와 隱逸의 정신”으로 이태준을 “조선이라는 폐허를 사는 체념의 심정”으로 특징화, 명명화하고 있다.
- 8) 이원조, 『고전부흥론시비』, 『조광』, 1938.3, p.298. 황종연 앞의 논문 p.62 재인용

성을 찾고자 한 문장과 문인이든 근대성에 대한 신념적 탐색이 여전히 계급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은 지식어와 제도어로서의 일본어 아니면 기품과 정신으로서의 조선의 고전 속에서 정작 조선문학의 미래를 예감해보려 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근대문명과 직면하면서 민족이라는 추상적 함의 너머에 있는 구체적 민족 현실을 간과했다. 그러나 구체로서의 현실 즉 ‘지금, 이곳’에서의 식민현실, 민족현실에 주목하는 탐구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30년대 백석은 주목되는 시인이다. 백석은 문명어, 제도어로서의 일본어나 선비적 유교정신으로서의 조선어도 아닌 지방어, 정주 방언을 의도적으로 시 속에 들여왔다. 백석은 오산학교를 나와 일본 유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조선일보사에서 편집기자생활을 했다. 백석은 무엇보다 신교육을 받았고 예민한 언어적 자의식을 가진 모던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지식계층의 한자어가 아닌 순수한 토박이 말, 방언으로 정주 지방 풍속과 문화를 시 속에서 묘파해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언문일치 운동에서 글의 주체와 말의 주체가 식자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일정한 교육과 제도적 혜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언어란 공동체적 소통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사회계층의 표지로서 계층을 드러내는 표식이 된다. 언문일치운동 가운데서 일어식 한자어가 무제한적으로 수용된 것은 수용주체의 계급성과 배타성을 드러내는 어떤 지점이 다. 이때 지식인층을 제외한 일반 민중은 자기표현의 길을 찾을 수 없었는데 가령 농민들은 민요와 같은 분야에서나 겨우 자기 목소리를 찾을 정도였다⁹⁾. 백석이 시어로서 토착어를 선택한 것은 식민지 피지배층, 기층민중의 말을 시 속에서 전면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백석 시에서의 방언은 기표를 우위로 드러내면서 시적 환기를 시도한다.

9) 유종호, 「시와 토착어 지향, 동시대의 시와 진실」, 『유종호 전집2』 민음사, p.15 참조.

II. 1930년대 조선문단과 지방어의 발견

1930년대 말 고전부흥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백석 또한 고전과 전통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시를 보자.

한해에 몇번 매연지나 먼 조상들의 최방등 제사에는 킁킁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대머머리에 외양맹건을 질오터 맨 늙은 제관의손에 정갈히 몸을 씻고 교우 응에 모신 신주앞에 환한 초불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상 위에 떡보탕 시케 산적 나물지짐 반봉 과일들을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 보고 또 애끓는 통곡과 축을 귀애하고 그리고 합문뒤에는 흠향오는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

구신과 사람과 닢과 목숨과 있는것과 없는것과 한줌흙과 한점살과 먼 넷 조상과 먼 훗자손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은 것

<木具>부분

백석은 제사상에 모시는 갖은 음식들, 떡, 탕, 감주, 나물무침, 과일을 나열한다. 절을 하고 잔을 굽어보고 통곡하고 축문을 읽고 흠향하는 귀신과 접하는 제사의 과정을 제시한다. 제상그릇, 나무그릇에는 과거의 옛 선조 귀신과 사람과 닢과 목숨, 역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의식처럼, 슬픔처럼 가득 담겨져 있다. 시인이 “.....과.....과.....과”로 연결하는 열거는 백석 시가 가지는 리듬의식, 나열방식¹⁰⁾을 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들 즉 “조상과 먼 훗자손”의 아득한 것까지의 역사적 질서를 내포하고자 함이다. “.....과.....과.....과”는 끝없이 연결되는 혈통적 전통적 역사성과 연쇄를 암시하는 언어배열이다. 백석은 고전적 문화 풍속을 나열형식으로 모아 들여 지속적 시간과 민족 삶의 전체적 질서를 보여주려 한다.

이를테면 이와같은 시, “눈이 오는데/토방에서 질화로 우에 곱돌탕관에 약이 끓는다/삼에 숙변에 목단에 백봉령에 산약에 택사의 몸을 보한다는 육미탕(六味湯)/약탕관에서는 김이 오르며 달콤한 구수한 향기로운 내음새가 나고/약이 끓는 소리를 뽀뽀 즐거웁기도 하다”(《湯藥》). 운동주가 시에서 ‘병원’과 ‘환자’

10) 이경수, 『백석 시의 반복 기법 연구』, 『상허학회7집』, 2001, 이경수는 백석 시에서의 반복기법을 미적 효과와 결부지어 설명하려 한다.

를 노래하고 있을 때 백석은 한약방에서 곱돌탕관에 끓고 있는 탕약 냄새를 맡고 끓는 소리를 즐겁게 듣고 있다. 시인은 두 손으로 약그릇을 들고 “약을 내인 옛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약탕관의 냄새는 마음을 고즈넉하고 편하게 하면서 전통적 위안을 되새기게 한다. 오랫동안 끓이는 이의 정성과 마음, 은근하면서 지속되는 것으로서의 조선의 마음과 풍속이다. 이러한 민족적 풍속도는 문장과 문인들이 관심있어 한 난(蘭)에 대한 심취, 한시문(漢詩文), 문인화(文人畵)와 구별되는 지점으로 조선풍속의 일상성과 친근한 민족적 공유를 유발한다. 목기(木器)에 가득한 역사의 슬픔, 약을 낸 옛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이 끝없이 고요하고 맑아지는 동양적 심안(心眼)의 세계다.

그런데 백석 시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근대시에서 ‘구술어로서의 음성문자’를 시작품 속에서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신문학은 한말 특권 양반층의 언어였던 한문(漢文)을 버리고 한글(우리말)에 의한 문학에서 태동한 것이다. 근세 국가에서 민족문학은 ‘국어’에 의한 문학형식의 완성이라는 형식문제에서 출발한다¹¹⁾. 그러나 언급한 바대로 순조선어문학에 대한 신화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강박으로만 작용했을 뿐 내면에서는 ‘언문만으로 된 것’에 대한 폄하가 기실 작용하고 있었다. 한글을 천시한 계급은 일본어로 된 제도에 편입된 식자계급이었다. 문학과 문단은 제도였다. 실제 1930년대는 일본어 창작이 강요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백석이 시 속에 가져온 정주 방언, 이를테면 “무이징계국” “바리깨돌이” 같은 시어는 일본어/조선어, ‘이중적 글쓰기의 고뇌’에 빠져 있던 조선문인들 편에서나 계몽어로서의 일본어 창작행위를 한 문인들 편에서나 ‘타자의 언어’ 입에 틀림없다. 더욱이 언문일치제가 식자층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언문일치제가 복수적인 언어의 코드화를 일원적인 전달의 코드(문자표현)로 통일하게 해준 역사적 문화적 ‘제도’란 점을 환기해볼 수 있다. 백석이 시에 차용한 민중어로서의 지방어, 방언은 언문일치제에서 배제된 속어, 표준화 제도에서 밀려난 소수어인 셈이다. 백석은 시 속에 방언을 차용함으로써 소수어로서의 지방어를 재현하려 한다. 구술의 현장성과 지방 민

11) 金起林, 『金起林全集3, 문학개론/문학평론』, 심설당 73쪽.

중 전통을 기술하려 한 것이다.

실제 근대가 ‘청각적 음성’에서 ‘시각적 문자’로의 이행과정이라는 점은 익히 아는 바다. 근대는 ‘보는 것’을 통해 근대적 인식과 주체가 구성된다고 본다. 근대 원근법과 기하학이 발달하면서 주체중심의 시각주의가 발생한다. 시각이 다른 감각에 비해 압도적으로 중요해지면서 개인적 공간이 출현한다. 묵독하는 개인은 정독을 위해 조용한 개인적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독서는 독서집단의 공동체적 문화체험이 아니라 고립된 개인과 텍스트가 만나는 개인적 주관적 교감의 장이 된다. 시각적 독서체험을 위해 ‘문자’인쇄’에서의 변화도 이루어지는데 한국 모더니즘 실험에서 보여준 정지용의 형태주의적 실험은 일본 근대문학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시각적 문자의 유표화’라 할 수 있다.

...털 크 덕...털 크 덕...

나는 나는 슬퍼서 슬퍼서
心臟이 되구요
(중략)

털 크 덕...털 크 덕...털 크 덕...털 크 덕...

정지용 <爬蟲類動物>부분

“털 크 덕...털 크 덕...”기차소리는 기차가 궤도를 따라 달리는 시각적 형태로 공간화된다. 각 음운 사이의 띄어쓰기, 말줄임표 등 지용은 기차 소리를 형태적으로 반복, 배열하면서 소리를 시각화한다. 공동체적 독서에서의 음독은 청각에 의한 구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지만 근대문화에서 묵독은 시각적 재현을 지향한다. 이때 시 텍스트는 문자, 도상기호, 띄어쓰기, 구두점, 단락나누기 등¹²⁾에 주목하면서 시각적 텍스트로 발전하게 된다. 근대문학은 묵독을 통해 고독하게 작가와 마주하면서 시각적으로 텍스트와 만난다. 독자는 개인적 나르시즘적 독서를 향유하는 근대문학의 독자가 되는 것이다.

일본유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조선일보사 편집일을 담당했던 백석이 당시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백석은 그의 시

12)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119쪽 참조.

에서 언문일치 제도어에서 철저히 배격된 방언, 모더니즘적 시각언어(시각 이미지)와 구별되는 음성문자를 구사한다. ‘방언 구사’ ‘음성문자의 구현’이 단 순히 고전적 전통에 대한 동경으로 상실한 고향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기 위해 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대화의 동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단 정짓기도 힘들다. 백석은 민족의 구체로서 ‘민중어’ ‘방언’을 통해 역사적 전통 성을 찾고자 한 것이다. 민족 안에서 타자로서의 민중, 표준어에 대한 타자로서의 지방어를 발견하고 소수자의 언어를 통해 근대의 제도화에 대립하고자 한 다.

그런 점에서 소재적 차원에서 곧바로 백석 시를 민족주의 시학으로 승격시 키는 것도 문제거니와 지금까지 백석 시의 논의가 민족문학담론의 한 방편으 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논의되어 온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백석 시연 구는 민족적 민중적 세계에 대한 환기 이전에 시어 특질에 대한 분석적 규명, 언어사적 친착이 우선되어야 한다¹³⁾. 그와 같은 전제 속에서 시인의 세계관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기법을 분석하면서 시인의 미학이나 시적 기법의 의미만을 논하는 것, 그리고 언어분석적 차원을 배제한 채 시 텍스트 소재와 내용 차원을 갖고 민족시학 운운하는 것은 양쪽 모두 다 백석 시가 함축하는 ‘역사성과 결합된 언어적 복합성’을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한다.

지금까지 백석 시 표현 형식에 대한 논문들은 백석 시가 가지는 샤머니즘적 요소¹⁴⁾와 서사성과 모더니즘의 방식에 주목하는 연구¹⁵⁾, ‘서사적 리듬’직접화

13) 백석 시 연구에서 표현 형태, 기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김명인, 『백석시고』 (『우보 전병두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우보 전병두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 원회, 1983), 이승원, 『풍속의 시화와 늘변의 미학』(『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김영민, 『백석 시의 특질 연구』(『현대문학』, 1089.3), 정효구, 『백 석시의 정신과 방법』(『한국학보』, 1989년 겨울), 임성조, 『백석 시의 한 이해-형 상화 방법과 禪味에 관하여-』, 『국어국문학110권』, 1993, 고희진, 『현대시의 서 사 지향성과 미적 구조』(시와시학사, 2003), 이경수, 『석 시의 반복 기법 연구』, (상허학회7집, 2001)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백석 시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 논 의들이지만 백석 시가 가지는 표현 기법이 어떤 민족문학사적 전통 속에서 연 유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백석 시의 문학사적 의미를 결론짓는 부분에도 미흡하다.

14) 김명인, 『매몰된 문학의 제자리 찾기』, 창작과 비평사, 1988년 봄호.

15) 최두석, 『1930년대 시의 표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법'에 주목하는 기법적 연구¹⁶⁾ 등이 초기 연구로 주목되었다. 백석 시의 문체적 특징과 의의를 드러내는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언어적 형식 내지 추상적 차원의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백석 시에서 문자언어와 음성 언어, 시각적 언어와 청각적 언어, 구술의 구비적 전통과 구술의 방법적 탐색을 통해 구체적으로 백석 시 표현양식이 갖는 궁극적 지향점, 역사성과 전통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토속어가 음성문자로 나타날 때의 시적 효과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백석이 민족적 역사적 기억술을 드러내는 방식을 살펴 보려 한다. 한국현대시에서 시적 형식으로서의 구술성과 이데올로기의 문제, 구술성과 문화, 풍속의 문제, 전통의 문제 등에 대하여 밝혀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Ⅲ. 구술 음성 복원과 전통

방언은 상투어가 아닌 모어이며 시원의 언어다. 사회적 순응이나 제도화, 교육화 되기 이전의 유년의 언어이다. 백석 시에서 방언은 분명 당시 모더니즘계 시인들이 사용한 도시문명에 대립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무엇보다 언문일치제가 가지는 '음성의 투명성'을 넘어서 '음성의 현전성'을 회복한다. 이를테면 언문일치제에서 음성은 문장화됨으로써 '음성의 시각화' '음성의 투명화'를 낳게 된다. 백석 시의 방언은 '음성'을 불투명하게 전도(顛倒)시킴으로써 기표우위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 그득히들 할마니할아바지가있는 안간에들뭉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
내음새가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내음새도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
은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것들이다

저녁술을놓은아이들은 외양간곶 발마당에달린 배나무동산에서

16) 고희진, 『서사적 기법의 심화와 전개』, 『현대시의 서사지향성과 미적 구조』, 시와시학사, 2003, 고희진, 『백석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고양이잡이를하고 숨굴막질을하고 꼬리잡이를하고 가마타고시집가는
노름 말타고장가가는노름을하고 이렇게 밤이어둡도록 북적하니는다

밤이깊어가는 집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르간에서들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한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썸방이굴리고 바리깨돌림
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사기방등에 심지를 뺏
번이나독구고 흥계닭이뺏번이나올오서 조름이오면 아랫목싸움 자리싸움을하
며 히드득거리다잡이든다. 그래서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치는아침 시누
이동세들이 옥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새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정
계국을끄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라오도록잔다.

<여우난곡族>부분

오늘날 우리는 ‘음성’과 ‘문자’를 투명한 것이라고, 음성이란 문자에 의해 그
대로 기술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언문일치에 익숙해진 결과다). 그러나 표준
어가 아닌 방언을 그대로 기술한 기록방언을 보게된다면 발화된 말과 문자사
이의 큰 간격이 있음을 감지한다. 기록방언은 분명 ‘청각적 언어성’을 환기시키
며 ‘음성’의 현전성을 느끼게 한다. 방언은 표준어보다 구어체의 직접성을 확보
한다. 시각적 이미지로 형성된 근대시의 이미지는 음성과 문자의 투명성을 전
제로 전달코드화되어 왔던 셈이다. 방언에 의한 ‘음성언어’의 부각은 독해과정
에서의 ‘불투명성’과 발화되는 말(parole)의 과잉을 환기시킨다. 문자언어가 균
질화된 언어, 제도화된 기호로 독서과정에서 ‘음성’의 청각적 전달을 유보하고
있다면 방언은 ‘청각적 음성’을 유표화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불현듯 ‘음성’의
현전성이 드러난다.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개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것들이다” 여기서 쓰여진
기록은 분명 ‘음성’, ‘말’(parole)을 공간에 멈추게 한 것이다. 백석은 방언을 기
록(script)함으로써 문자언어를 음성화한다. 묵독은 마음 속에서 재빨리 음성화
되면서 음독의 목소리를 회복한다.

구술문화 속에 사람들은 ‘말’에 위대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¹⁷⁾. 실제
백석이 시에서 목소리로 부르고 있는 것은 사물의 ‘이름’이다. “인절미” “송구

17) Walter J.Ong, 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55
쪽.

떡” “콩가루차떡” “바리깨돌림” “호박떼기” “제비손이구손이”시인이 시 텍스트 표면 위로 불러온 이름들은 묻혀진 것들이지만 목소리로 호명, 음성화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이 되고 있다. 이름은 호명되고 사물에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물은 마술적인 어떤 경향을 지니게 된다. 특히 <여우난곡族>에서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 혹은 “조아질하고 썸방이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에서 보여주는 열거와 병렬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름의 병렬적 나열은 운율과 반복, 맺구와 배열에서 리듬감을 느낀다.

이와같은 리듬은 구비적 전승에서 ‘판소리적 가락’의 나열과 접맥된다.

춘향이 주찬을 갖추어 은근히 드리니 갖은 음식 豐盛하다. 팔모접시, 대모반에 江華닭 두메핑에 대양푼에 갈비찜, 소양푼에 제육, 두 귀 발쪽 송편이며, 먹기 좋은 꿀설기, 보기좋은 花煎이며, 송기떡의 웃기рода. 봉산참배, 양주 밤과, 남양 연시, 報恩 대추, 봉전복, 염통산적, 양볶이, 竹筍나물, 썸바귀를 곁들여 놓고¹⁸⁾

춘향이 도령을 맞아 음식을 들여놓는 장면에서 음식을 나열하는 장면이다. 백석 시에서 음식 나열과 열거는 판소리 구술성의 반복과 리듬을 닮아 있다. 이를테면 “섯달에내빌날이들어서 내빌날밤에 눈이오면 이밤엔 쎄하안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내빌눈을받노라”(古野)에서 “내빌날”의 반복, “귀신”의 반복, 맺구에 의한 리듬감을 환기해볼 수 있다. 구술성은 분석적이고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대단히 리드미컬한 리듬을 심리적으로 환기하도록 돕고 있다. 판소리의 반복적 운율, 나열과 배열은 구연을 유창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여우난곡族>에서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의 음식명의 나열은 춘향전에서의 음식명의 나열, 나열에 의한 연속적 리듬을 환기시킨다. 판소리 구술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누적(累積)과 반복현상(反復現象)이라 할 수 있다. 반복적 운율은 판소리가 서사적 진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백석 시에서 반복적 운율은 서사적 진행을 유예시키면서 리듬감에 의한 정서적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18) 김기독, 전규태 편, 『춘향전』, 서문당, 1984, 34쪽.

집에는 언제나 센개같은 계산이가 벽작궁 고아내고 말같은 개들이 떠들
 석 짓어대고 그리고 소거름 내음새 구수한 속에 엇송아지 히물쩍 너들씨는
 데

집에는 아베에 삼촌에 오마니에 오마니가 있어서 찻먹이를 마을 청농 그
 늘밑에 샷갓을 씨워 한종일내 뉘어두고 김을 매려 단녔고
 <넘언집 범같은 노큰마니>부분

백석 시에서 풍경은 나열하듯 펼쳐진다. 집에는 힘이 센 거위가 야단법석을
 떨면서 떠들고 다니고 개들이 떠들쩍 짓어대고 소거름 냄새 속에서 송아지가
 한가하게 천천히 왔다갔다하면서 주위를 맴돌고 있다. 집에는 “아베”와 “삼
 촌” “오마니”가 있어 “찻먹이”를 마을입구 그늘에 뉘어 두고 김을 맨다. 백석 시
 에서 사건은 완결되지 않고 풍경은 연결의 관계로 중첩된다. “...고...고...고”와
 같은 장황스런 나열, 장황스런 말투는 직전에 말해진 것의 중첩을 통해 말을
 듣는 청자가 이야기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청자를 결합해둔다.
 장황스런 말투는 판소리에서의 특징이며 구술문화에서 특징이다. 시각적인 글
 은 씌어진 페이지로 되돌아갈 수 있지만 구술적인 말하기는 발화되는 순간 사
 라지기 때문에 장황한 반복을 늘어놓는 수밖에 없다¹⁹⁾.

사실 문자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언어를 조작할 때 감각은 언어를 시각적으
 로 변형하고 문법적으로 체계화시키려 한다. 말(parole), 특히 토속어는 언어적
 체계이전에 이미지로서 습득한 것이다. 백석 시에서 구현하고 있는 방언으로서
 의 모어는 신체리듬과 텍스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고양
 이잡이하고 숨굼막질을하고 꼬리잡이를하고 가마타고시집가는/노름 말타고장
 가가는노름을하고”에서처럼 중얼중얼거리게 하는 방언과 음성적 환기는 시 텍
 스트를 읽어가면서 신체리듬을 만들어 신체를 건들거리게 한다. 전통문화에서
 가인(歌人)들의 추임새, 판소리꾼들의 추임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백석 시는 소리정연하거나 분석적인 사고에 의한 언어가 아니라 장황
 하고 다변적인 구술, 음성언어를 텍스트 표면 위로 부각시킴으로써 감정이입적
 이고 정서적인 전통의 구술성을 환기한다. 이야기를 공유하고 신체리듬을 경험

19) Walter J.Ong, 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65
 쪽 참조

함으로써 말의 안과 밖에서 공동체의 시간을 회복한다. 목소리로 된 말, 구술적 음성성을 복원하는 것은 집단으로서의 독자를 불러오는 것이며 넓게는 일체성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말은 공동체 안에서 신령스러운 것과 결부되면서 결속을 다지게 하는 내면적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백석은 구술적 말을 통해 전통과 민족성의 힘을 성스러운 일체감과 일치시키고자 한 것이다.

IV. 구술사로서의 기억과 정치술

백석 시는 산문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풍경을 겹쳐놓음으로써 이미지의 중첩을 시도한다. 이미지의 중첩은 오히려 그의 시에서 서정적 울림과 의미를 창조해내는 기법적 응시라 할 수 있다.

호박늪에싸오는 붕어꿈은 언제나 맛있었다

부엌에는 뽕양계질들은 八모알상이 그상웁엔 새파란싸리를그린 눈알만한
蠹이뵈었다

아들아이는 범이라고 장고리를 잘잡는앞니가빠들어진 나와동갑이었다

울과주박에는 장군들을따러와서 엄지의젓을빠는 망아지도 있었다
〈酒幕〉전문

시인은 서사적 진행을 시도하기보다 묘사적 제시를 통해 풍경을 창조하고 있다. 호박늪에 싸먹는 붕어빵에 대한 기억, 개다리소반위에 잔(蠹)들, 잔고기를 잘 잡는 아들아이, 엄마 젓을 빠는 망아지, 사물과 사건은 함께 병치되면서 주막의 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각 이미지들은 통합되면서 서정적 순간적 한 이미지를 산출한다. 백석 시에서의 사물들은 각각 병치되지만 사물들 사이에서의 연결은 시적 이미지를 통합하려는 독자의 이미지운동에 의해서 다시 결합된다. 백석은 철저하게 시적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물들 사이에 환유적 연결을 남겨둔다. 주막의 한 풍경 속에서 시인은 잃어버린 과거의 풍경들을 추

적함으로써 주체의 원초적인 결여와 욕망의 결핍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려 한다. 객관적 제시는 주체의 갈증 속에서 고향의 백성들을 마음 속의 화석처럼 각인시키려는 정서 내면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보면 백석 시는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하나의 서사적 이야기를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인은 유년 기억을 보여준다. 서술성이 강한 이야기성의 지향은 이미지와 은유에 집착하던 1930년대 모더니즘 시 운동에 대한 반동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서술성은 대개 시적 고도의 상징성보다 대중적 이야기성, 구비설화성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의 동력은 ‘회상’이다. 백석은 기억하려 애쓴 충실한 회상을 역사적 현재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유년의 원체험은 근접감각으로 경험된다.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의 풍요로운 신체적 체험, 억압과 금기가 없고 우주와 자아의 분리가 일어나기 전의 세계이다. 신체의 감각기관이 전면적으로 살아나고 세계에 대하여 전존재적으로 탐닉할 수 있는 시기다. 몸기억으로 회복되는 잃어버린 유년 기억들은 회귀의식과 시원에 대한 실감을 주고 있지만 시인의 기억술은 단순히 몸기억을 넘어서서 ‘의도적 집단적 기억’과 연관된다. 이를테면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산나물”(〈가즈랑집〉)에서의 식용 산나물을 남김없이 기억하는 것, 음식과 놀이 문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억술은 단순한 몸기억을 넘어서 의도적 재현과 관계한다. 사실 유년의 기억은 미각과 촉각과 연관된 몸기억일 뿐 언어적 의식적 기억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백석 시의 유년 체험에 대한 기억은 몸기억이면서도 동시에 의식적 재현을 위해 호명된 것들이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어스럽저녁 국수당돌각담의 수무나무가지에 너귀의땀을걸고 나물매갖후
어놓고 비난수를하는 젊은새악시들
-잘먹고가라 서리서리물러가라 네소원풀었으니 다시침노말아라

벌개높역에서 바리깨를뚜드리는 쇠(소리가나면
누가눈을얹아서 부중이나서 찰거마리를 붙이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피성한눈속에 절인팔다리에 거머리를 붙인다

여우가 우는밤이면
 잠없는 노친네들은 일어나 팻을 깔리며 방요를 한다
 여우가 주둥이를 향하고 우는 집에서는 다음날으레히 흥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말인가

<오금덩이라는 곧>전문

성황당 수무나무에 나물과 밥을 갖다놓고 귀신의 원혼을 달래는 젊은 새악
 시들의 모습, 늪지 근처에서 쇠소리가 나 눈병에 찰거머리를 붙이고 피멍이 심
 하게 든 팔다리에도 거머리를 붙이는 장면, 여우가 우는 밤에 노인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 붉은 팻을 키질하는 풍경, 여우가 우는 날에는 그 다음날 흥사가 있
 다는 속설.

백석의 이와같은 기억은 경험 자체보다는 경험을 의지적으로 재현하려는 의
 지적 기억이다. 대개 5살과 6살까지의 기억은 거의 잊혀질 뿐만 아니라 그 이
 후 청년기가 되기 전 유년의 기억도 어렵פות한 감각 속에서 파편화된 순간들과
 함께 기억될 뿐이다. 백석은 유년 기억에서의 인상을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발
 전시킨 문화에 의해 도식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백석은 조선 백성의 고유한 풍
 속을 재현하듯 그려내면서 집단적 기억으로서의 사회적 기억을 드러낸다. 한
 개인의 기억은 비록 개인적 기억이라 할지라도 결국 가족과 친족, 마을, 집단
 그리고 국가와 같은 사회적 그물망 안에서 만들어진다²⁰. 백석은 어린 시절 고
 향의 풍속을 집단적으로 체험하고 기억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을 밝히고 집단을
 통합하는 힘으로서의 기억을 끄집어내려 한다.

작새가 발뿌리에서날은 논두렁에서 아이들은개구리의 뒷다리를 구워먹었다
 개구멍을쑤시다 물କୁ하고 배암을잡은늪의 피같은물이끼에 해빛이 따그웠다
 둘다리에얹어 날버들치를먹고 몸을말리는 아이들은 물총새가되었다
 <夏沓>전문

논두렁에서 아이들이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먹는다. 뱀잡는 늪지대, 물이끼,

20) 함한희, 『구술사와 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Vol.25.No.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5쪽.

버들개의 풍경, 물놀이를 한 아이들이 몸을 말리는 풍경 등을 담담하게 기억해낸다. 이를테면 이와같은 시 “냇은질동이에는 갈줄모르는늙은집난이가같이 송구떡이오래도록 남아있었다//오지항아리에는 삼촌이밥보다좋아하는 찹쌀탁주가 있어서/삼촌의임내를내어가며 나와사춘은 시름털털한 술을 잘도채어먹었다//제사스날이면 귀먹어리할아버지가에서 왕밤을밧고 싸리고치에 두부산적을깨었다”(〈고방〉). 시인은 찹쌀탁주와 삼촌의 임내, 왕밤을 까 먹고 두부산적을 깨던 기억을 기억해낸다. 집단적 기억의 재구성과 실행이라는 것은 분명 문학과 문화적 기억을 융합시킴으로써 민족 정체성 상실에 대한 저항의 실례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기억의 장으로서의 축제적 기억은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 민족 신화를 현재화하려는 국면을 제공한다.

백석의 경우 민족적 기억은 거대한 민족대서사시로서의 민족 기억이 아니라 망각되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터부시된 민중서민 풍속과 일상적 소역사에 대한 기억이다. 즉 지배계층에 의해 쓰여진 영웅중심의 민족서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문자로 남길 수 없는 피지배층의 삶을 구전과 민속의 형태로 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기억으로 선택되어 여과된 민족역사 기억과 구별된다. 구별된 민중 하위 집단기억이다. 백석이 전해주는 역사는 문자로 남겨두지 않은 지방민 다수의 목소리를 복원시킨 것이다. 지방의 풍속을 드러내는 방언으로 지방 일상 민속과 풍경을 드러내는 것은 표준어로서의 서울중심, 엘리트중심적 역사와 구별되는 변별지대를 만들어낸다. “냇은질동이” “찹쌀탁주” “귀먹어리 할아버지” “왕밤” “두부산적”과 같은 문화적 산물들, 성황당 “수무나무”아래서 여인네들이 비는 행위와 여우 우는 다음날의 흥사와 같은 민담적 속설. 이러한 기억은 진정한 경험에 저장되어 재현된 ‘개인적 기억’이라 말할 수 없다. 시인의 기억은 집단기억을 전제로 하면서 망각 속에 파묻혀 있던 흔적들을 찾아내려 하는 민족적 기억의 정치술이다. 문자를 가진 자들이 만든 문자역사에 대한 대항역사(對抗歷史)로서의 지방사(地方史)라 할 수 있다. 문자로서 기록되지 않고 목소리로만 전승되는 민중의 역사를, 구어로서 풀어써야 할 풍속과 역사를 시 속에 차용한다. 백석은 구비적 이야기, 구술사로서의 지방풍속을 ‘목소리적 재현’을 통해 시도하고자 한다. 구술을 통해 타자화된 민족을 발견한다. 문혀진 전통과 문화의 재발굴이다.

V. 구술성의 선택과 이데올로기 : 결론을 대신하며

1930년대 카프가 해체되고 1940년대 초 ‘조선어학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조선어로서의 국어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엘리트 지식인들은 이중언어 글쓰기에 심리적으로 강박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1930년대 말 <文章>파를 중심으로 일어난 고전부흥운동은 강화된 파시즘 근대에 대한 대항의 논리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백석은 조선어와 일본어, 이중 언어에 대한 강박을 벗어난다. 그 스스로가 모더니즘 세례를 받은 일본유학과 지식인이면서 언문일치제에 의해 배제된 정주 방언을 시 텍스트 안에서 실험한다. 방언은 표준어, 한자어에 의해 타자화된 민족어인 셈이다. 백석은 조선 근대 식자계급에서 소외된 방언을 구사하고 문자기록 역사에서도 배제된 구술로서의 문화의 발견, 민중의 풍속을 재발견하려 한다. 이것은 1930년대 <文章>파 문인들이 보여준 유교적 사대부의식에서의 상고주의와 확연히 구분되는 하위문화로서의 민중성의 발견이다.

민중의 무속적 풍속에 대한 객관적 제시, 명절날 먹던 음식물과 즐기던 놀이 문화에 대한 구체적 필진성, 이와같은 서술성은 당대 모더니즘 시들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시적 형식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국면을 상징하게 한다. 즉 시인에게 있어서 언어의 선택은 타자성을 전제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방언의 선택은 제도권 언어에 대한 대항적 시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백석은 시형식, 즉 서술성과 서사의 객관적 제시, 이야기를 ‘목소리’로 구현하면서 구술 형식으로 집단기억을 끄집어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형식의 정치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준오 선생에 의하면 서정 장르는 세계의 자아화, 세계와 자아의 동일화를 지향하는 은유의 제국주의를 드러낸다. 서정적 세계는 “강요된 조화의 감정”²¹⁾을 환기시킨다는 것이다. 서정 장르는 동일성과 단일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배계층에 속하며 체제 유지를 위해 언어를 획일화하려는 공식적 독백을 하게 된다. 실제 향가, 경기체가, 시조는 지배계층의 보수적 고백적 자아를 드러내는 방편

21) 김준오, 『시의 형식과 이데올로기』,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 지성사, 2000, 131-134쪽 참조.

이었다. 그것을 통해 유가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는 장르적 부귀를 누렸다. 그런 관점에서 서사장르는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연관해서 볼 때 상호 대화성, 민중적 공동의식을 드러내는 서민장르라는 점이다. 임화를 비롯하여 카프가 실험하고 있는 시에서의 서사성 내지 서술성은 그와 같은 세계와 자아의 국면에서 일어나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해석의 문제를 던지면서 ‘대화주의의 징후’를 읽게 한다.

결국 “문학이 이데올로기를 경험적으로 접근하게 해 주는 가장 계시적인 양식이라는 정의는 형식에 이데올로기적 의의를 부여한 것”²²⁾이다. 문학에서의 주류장르의 성행에는 사회역사적으로 규정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장르란 당대 삶에서 삶과 사물을 통찰하는 인식의 틀로서 이데올로기와 관계 속에서 선택된다. 텍스트 형식을 매개로 세계와 관계짓고 비로소 이데올로기와 연관된다고 볼 때 백석 시는 시어의 선택, 공동체적 전통적 울격, 서술성과 이야기성을 통해 민중적 대화주의, 민중의식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백석 시에서 서정적 산문시, 독백적 언어이면서 민중적 집단적 기억을 되살리는 서사성은 분명 사회적 역사적 산물로서의 시적 형식에 대한 시인의 절대적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백석은 ‘판소리적 리듬과 구연적 상황’의 차용, 문자역사에서 기록되지 않을 지방 민중 삶의 풍속에 대한 구술사로서의 기억술을 보여준다. 이것은 <文章>과 문인들이 발견한 ‘전통’과 다른 의미에서의 민중적 민족적 신체리듬과 정체성을 환기시킨다. 잊혀진 전통에 대한 환기라 할만하다. 전통 서정시가 자칫 빠질 수 있는 민족의식에 대한 보수적 회귀에 반하여 백석 시는 오히려 울격과 배열에서, 구술적 제시와 풍속의 발견에서 ‘민중적 대화주의’를 드러낸다. 백석은 시적 담론의 선택을 통해 전통의 응집력을 보여준다. 시어와 담론의 선택은 이데올로기적 선택으로서의 민족시학이었던 셈이다.

주제어 : 방언, 표준어, 이중언어, 문장파, 이데올로기, 구술성, 판소리적 리듬, 기억술, 민족시학과 전통

22) 김준오 앞의 책, 129쪽.

참고문헌

- 김재용 엮음, 『백석전집』, 실천문학사, 1997
- 송준 편, 『백석시전집』, 학영사, 1995
- 정효구 편저, 『백석, - 한국현대시인연구』, 문학세계사, 1996
- 고형진, 『현대시의 서사 지향성과 미적 구조』, 시와시학사, 2003
- 김기득, 전규태 편, 『춘향전』, 서문당, 1984
- 金起林, 『金起林全集3, 문학개론/문학평론』, 심설당
- 김명인, 『백석시고』, 『우보 전병두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우보 전병두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1983
- 김영민, 『백석 시의 특질 연구』, 『현대문학』, 1989. 3.
- 김준오, 『시의 형식과 이데올로기』,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 지성사, 2000
- 김현주, 『판소리 문학에서 口述성과 기술성의 관련양상 및 장르적 의미』, 『판소리연구. Vol.2. No.1』, 판소리학회, 1991
- 박태일, 『백석과 『만선일보』, 그리고 우리시의 복극성』, 『한국 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2004
- 송효섭, 『구술성과 기술성의 통합과 확산, -국문학의 새로운 사유와 담론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Vol.-No131』, 2002
- 유중호, 『시와 토착어 지향』, 『동시대의 시와 진실, 유중호 전집2』, 민음사, 1995
- 유중호, 『시원 회귀와 회상의 시학-백석의 시세계1』, 『다시 읽는 한국시인』, 문학동네, 2002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Vol.25. No.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 이경수, 『백석 시의 반복 기법 연구』, 『상허학회 7집』, 2001
- 이승원, 『풍속의 시화와 놀변의 미학』,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 李孝德, 박성관 역, 『음성(音聲)의 변용』,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1

- 임성조, 『백석 시의 한 이해-형상화 방법과 禪味에 관하여-』, 『국어국문학110권』, 1993
- 임화, 『역사적 반성에의 요망』, 『조선중앙일보』, 1935, 7. 5-16쪽.
- 정효구, 『백석시의 정신과 방법』, 『한국학보』, 1989. 겨울
- 천장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251쪽.
- 함한희, 『구술사와 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Vol.25. No.1』,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 황중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1930년대 후반기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991. 10쪽.
- Walter J. Ong, 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55쪽.

<Abstract>

The Ideology of Oral Narration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the Baek Suk's Poem

Kim, Yong-Hee

When KARF was dissolved and 'Chosun Language Society' was forced to break up in the 1930s, the national language of Chosun (Korean) language faced a serious crisis. Elite intellectuals were psychologically pressured to write using dual languages. At the end of the 1930s, the Classics Revival Movement led by the school of <Munjang> was planned with the logic of countering the strengthened age of Fascism. However, Baeksuk broke away from the constraint of using dual languages, Chosun language and Japanese. Though he himself was an elite who studied in Japan steeped in modernism, he experiments in his poem the Jungjoo dialect, which had been excluded due to the system of uniting spoken and written language. Dialects are national tongues removed by standard language. Baeksuk spoke dialects that were neglected by Chosun's modern elites, and discovering the culture of dictation that was eliminated by written record history, he rediscovers the customs of the people. This was the discovery of popular style distinguished clearly as lower culture from classicism of Confucian nobility style displayed by literaries of Munjang school in the 1930s. The objective presentation of people's shaman customs, and objective truthfulness of food and games enjoyed on holidays; such description leads to assume a unique identity distinct from modernist poetry of those days as well as an ideological aspect of poetic forms. In other words, choice of language for poets is connected to a certain ideological choice with the precondition of isolation. Primarily the choice of dialect presents a perspective opposing the official language. But

for Baeksuk most of all, poetic form, or objective presentation of description and narration, and the method of pulling out memories through dictation or reliving a story with 'voice' should consider 'politics of form'.

In Baeksuk's poetry, his lyrical prose poems, his pursuit of people's identity restoring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e people through monologue language would indeed be the poet's absolute choice for poetic form as social and historical product. Most of all, Baeksuk borrows 'Pansori style rhythm and narrative situation', and his memory technique as narrator of local people's life styles not recorded in written history arouses the people's national physical rhythm and identity in a sens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 discovered by <Munjang> school literaries. It would be the arousal of forgotten traditions. As opposed to the conservative regression to national spirit that traditional lyrical poems may easily fall into, Baeksuk's poetry shows poetic discussion choices and cohesion of traditions in versification and arrangement, in narrative presentation and discovery of customs, and thus prepares opposing poetics as national poetry.

Key Words : dialect, standard language, dual language, Munjangpa school, ideology, narration, Pansori style rhythm, memory technique, national poetry and traditions